

제3차 콜로키움

좌담_지구화 시대 청(소)년의 고통과 공공신학

기조발제(김진호_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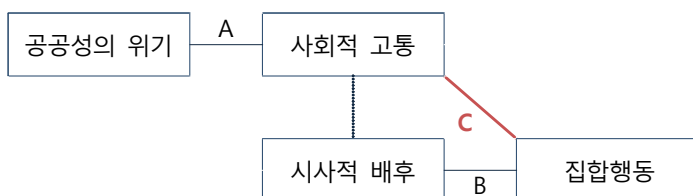
이 콜로키움의 문제의식은 지구화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가 심각한 공공성의 위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곳곳에서 국공유지를 팔아, OECD 국가 최고 수준인 전체의 70%가 투기에 노출된 땅이다. 또한 국공영 기구나 기업도 빠른 속도로 민영화되고 있고, 대기업집단에 월등히 유리한 제도들과 법안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외교부 특채 부정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법과 제도망 언저리에서 벌어지는 각종 특권화 시스템은 여전하다.

이를 견제할 언론 미디어는 스폰서 미디어라고 할 만큼 자본예속이 심각하며, 공공적 지식인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도 계층적 불평등화가 매우 심각하다. 그 외에 의료의 불평등도 놀라울 만큼 심화되고 있고, 법률적 불평등화는 말할 것도 없다. 국내 6대 법률기업(로펌)은 전체 법률시장 매출액의 50%를 독과점하고 있다. 이는 법률 시장의 절반은 시민과 거의 무관한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은 이미 탈 시민화의 영역이 된 셈이다. 심지어는 예술이나 신앙의 영역도 불평등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부문에 속한다.

이러한 공공성의 붕괴 요소들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것은 공공성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지만, 이미 많은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니 여기서는 ‘공공성의 위기’라는 문제의식을 전제하면서 콜로키움을 기획하였다.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하고서 이 콜로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물음으로 전개되었다.

첫째로 ‘공공성의 위기로 인한 사회적 고통(social pain)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라는 물음이다. 이것은 공공성의 위기가 구조화되어 자아가 산산이 붕괴되는/될 것에 대한 ‘예감된 체험’에 대응하는 행동에 관한 것이다. 곧 공공성의 위기가 존재론적 자아 해체의 위기(ontological crisis)로 체험되면서 의식, 무의식적인 자아의 재주체화를 위한 의도하지 않은 행동들에 관하여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개체적 행동이 아니라 ‘집합적 행동’(collective action)에 있다. 곧 사회적인 집합행동을 분석하고, 그것이 공공성의 위기로 인한 사회적 고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해석하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물음이다. 공공성의 위기와 사회적 집합행동들 사이의 연계성을 해석해 내는 일은 대체로 집합행동에 관한 분석적 담론 영역에서 생소한 작업에 속한다. 대개는 공공성의 위기로 인한 사회적 고통을 다루는 연구(A)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고, 집합행동의 직접적이고 시사적인 배후에 관한 논의들이 따로 있다(B).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이 두 논의를 결합시키되, 시사적 배후에 관한 논의를 사회적 고통과 연계시키는 중범위 수준의 연구(studies of the middle range)에 있다(C).



우리는 이 작업을 두 범주로 나누어 접근했다. 하나는 교회 밖의 집합행동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안의 집합행동을 다룬다. 특히 이 두 범주에서 주체화에 성공적인 듯이 보이는 사례들을 주목하였다. 이 사례들을 분석적으로 다룸으로써 존재론적 위기에 직면한 이들이 어떻게 재주체화에 성공하게 되었는지를—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묻고자 한다. 하지만 이 논의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이 공공성 논의에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를 살피고자 했다.

한 번의 연구로 이 과한 문제제기를 만족할만한 답을 얻어내기는 무망하다.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겠다. 하지만 공공성의 위기와 그 대안적인 가능성에 관한 토론에서 이러한 중범위적 문제제기를 피할 수는 없었기에 부득이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하였다.

두 번째 논의는 첫 번째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공공성의 위기와 집합행동 간의 연관성에 관하여 다루고 그것에 관한 비평적 시도를 한 뒤에, 신학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한다. 이른바 공공신학이라고 알려진 작업을 시도하는 것인데, 이제까지 다루었던 방식은 너무 거시적이어서 선언적 논의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적 관점에서 중범위적 연구를 토대로 하는 우리의 작업을 시도하는 것이다. 공공성의 위기와, 그것과 관련된 사회적인 집행행동과 그 효과를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에 관한 신학적 언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업이다.

한신대학의 평화와공공성센터, 가톨릭의 우리신학연구소, 그리고 개신교의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는 이런 방식의 논의를 매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매해마다 공공성의 위기와 집합행동을 다루는 한 가지 주제를 세 번의 연속적 콜로키움으로 나누어 논의를 펴고자 한 것이다. 공공성의 위기와 사회적 고통, 그리고 집합행동의 연관성에 관한 첫 번째 물음에 대하여는 교회 밖과 교회 안의 범주에서 다루는 두 번의 콜로키움을 통해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이 논의들을 받아서 세 번째 콜로키움에서는 좌담형식으로 신학은 공공성의 위기와 집합행동에 관한 문제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를 보다 확장하여, 부족한 것을 가능한 한 보충하여 공공성의 위기와 공공신학에 관한 한 권의 단행본을 만들어 냄으로써 하나의 문제제기를 끝마치려 한다.

| | | |
|-----------------|--|------------|
| 제1차 콜로키움 | 지구화로 인한 공공성의 위기와 사회적 고통의 심화, 그리고 집합행동 사이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 교회 밖의 범주에서 |
| 제2차 콜로키움 | (중범위 연구) | 교회 안의 범주에서 |
| 제3차 콜로키움 | 공공성의 위기에 대한 신학의 개입 문제(좌담) | |

첫 번째로 해에 우리가 주목하는 주제는 ‘청(소)년/녀’(이하에서는 ‘청(소)년’이라 부르겠다)이다. 청(소)년은 지구화가 중심이 되어 촉발하고 있는 공공성의 위기를 가장 극렬하게 몸으로 체현하는 연령적 범주다. 즉 위기를 행동화하여 재주체화의 모험에 뛰어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적 층위이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을 통해 지구화 시대 공공성의 문제와 신학적 개입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한 부문에 속한다.

첫 번째 콜로키움에서는 팬덤 현상과 촛불집회 초기국면의 집합행동(이하 ‘촛불행동’)을 통해 청소년의 존재론적 위기와 공공성의 문제를 살피고자 했다. 발제자인 이규원은 팬덤과 ‘촛불행동’의 연계성에 관한 생소한 가설을 입증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것은 촛불행동을 촉발한 직접적인 시사적 배후를 물어왔던 종래의 논의 지형과는 다른 문제의식으로 우리의 사고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팬덤은 청(소)년의 하위문화 현상에 속한다. 즉 그것은 공공성을 결여하고 있는 비주류적인 청(소)년 담론을 형성한다. 하지만 자본이 마케팅의 대상으로 청(소)년의 팬덤 현상을 활용함으로써 그들의 비주류적 하위문화가 주류문화와 접촉 가능성이 넓혀졌고, 이에 대한 청(소)년의 역마케팅은 어떻게 청(소)년의 하위문화적 행위가 주류사회를 활용하는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습하게 했다. 이것은 청(소)년이 특정 국면에 자신의 행위를 통해 공공성 논의에 개입하는 지평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지구화 시대 청(소)년을 공적 주체로 호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이러한 청(소)년의 집합행동과 그 효과가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향후 그들의 주체화에 어떤 사회적 효력을 발휘할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의 징후를 보았으며, 그 징후

에서 추측되는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발제자의 글에서 향후 가능성에 대한 생각보다는 팬덤과 촛불행동 사이의 연계성을 분석함으로써 촛불행동의 직접적이고 시사적 배후에 관한 물음보다는 좀더 광의적인 문제의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본다. 비록 발제자는 팬덤과 청(소)년의 사회적 고통, 그리고 그 배후의 공공성의 위기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생각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발견한다. 특히 표상된 언어들 간의 논리적 인과성보다는 체험과 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열어놓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콜로키움에서는 개신교의 해외단기선교와 가톨릭의 카리스마 성령운동을 중심으로 교회에서의 청(소)년의 주체화에 관하여 논의했다. 개신교 측 발제자인 유승태와 가톨릭 측 발제자인 경동현은, 서로 합의하여 작업을 진행하면서, 배경과 양상을 달리하는 두 가지 주체화 프로그램에서 주체화의 공통된 함의를 발견했다. 공히 두 운동은 지구화 시대 정체성의 위기와 관련하여 재주체화하려는 다양한 시도 가운데 우연한 성공을 거둔 사례들에 속한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운동은 기존의 주체화의 컨셉과는 다른 형식과 내용을 갖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연구에서 발제자들은 지구화로 인한 공공성의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공성의 모색에 개입하는 행동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 그것은 도리어 새로운 체험과 적절히 결합되는 신앙 모델을 만드는 데 실패했고(가톨릭), 기존의 교회적 주체화 모델에 회수되고 말았다(개신교).

요컨대 이규원에 의하면 촛불행동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사회적 공공성의 형성에 개입하는 청(소)년의 주체화 양식 혹은 그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유승태와 경동현은 최근의 교회적 주체화의 행동들은 변화하는 세계에 참여하여 공공성 논의에 개입하는 새로운 주체화 모델이 될 수 없었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이 두 콜로키움의 논의에 기반을 두고 신학은 공공성 논의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첫째로 두 발제가 다루지 못한 공공성으로 인한 청(소)년의 사회적 고통에 관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공공성과 관련해서 사회적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공신학의 필수적인 문제의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두 번의 사례 연구에서 다룬 바 있는 사회적 고통과 집합행동에 관한 논의를 보충해서 이야기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발제자들의 논의를 검토하고 보충하는 이야기가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사회적 고통과 특정한 주체화 행동 사이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요청된다. 나아가 교회 밖과 안에서 수행된 청(소)년의 집합행동이 공공성 형성에 성공적인 것과 실패한 것이라는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신학은 촛불행동, 해외단기선교, 카리스마운동 등이 미칠 사회적 영향에 관해 신학적인 논평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신학의 과제에 관해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공공성에 관한 신학의 언어를 발견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토론자(사회: 박영대/ 패널: 백소영 연구홍 전철)